

「獨逸」에서의 原電에 대한 輿論動向

本稿는 지난 90年 독일원자력산업회의가 Allenbach여론조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독일국민의 原電에 대한 여론동향으로 日本 「原子力資料」 91年 11月號의 내용을 번역, 轉載한 것이다.

독일원자력산업회의(DAtF)가 91년 9월11일에 발표한 「통일독일에서의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일국민의 61%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91년 5월에서 6월에 걸쳐 DAtF의 의뢰로 Allensbach 여론조사소가 실시한 것으로 독일국내에 연속 16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독일국민 1,941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국민의 약 31%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구형로를 신형의 보다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는데 찬성하고 있었지만 이 질문에는 구서독지역(찬성 28%)과 구동독지역(찬성 43%)이 큰 의견차이를 보여 전력이 풍부한 구서독지역과 구형로의 안전성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전력난에 시달리는 구동독지역의 의식의 차가 반영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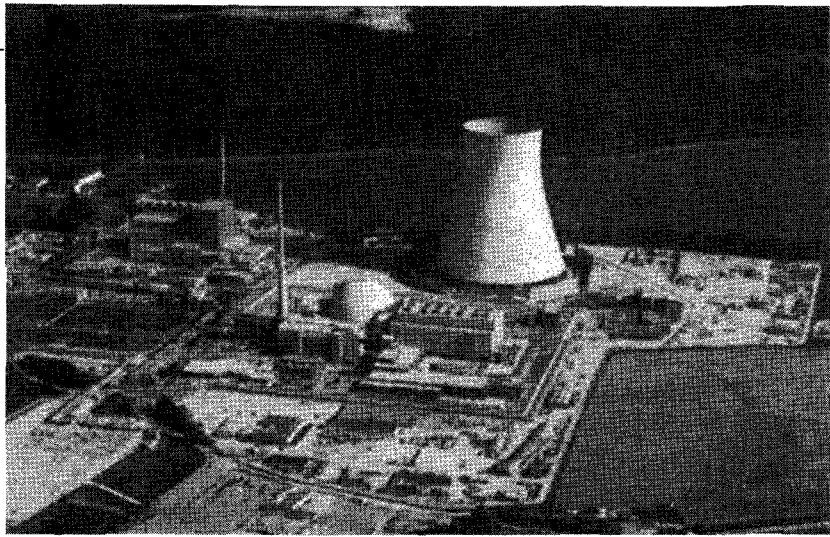
또 이 조사에서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은 인정하지만 신규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전체의 30%(구서독지역 32%, 구동독지역 22%)에 달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이 용을 완전히 중지해야 하며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에 그쳐 독일국민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이 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에서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자력발전소의 신설 또는 기존발전소의 운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84%(구서독지역 84%, 구동독지역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발전이 용이 완전히 중지될 것」이라는 의견은 겨우 8%에 그쳤다.

이외에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서독지역에서는 「원자력발전 쪽이 환경영향이 적다」는 의견이 1984년의 구서독지역의 조사에서 37%, 89년에 45%, 91년에 50%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등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가 해마다 깊어가고 있고 특히 구동독지역에서는 현시점에서 56%가 원자력발전의 환경면에서의 효과를 인정하는 등 최근 지구의 기후변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몇십년간의 주력에너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구서독지역에서 61%, 구동독지역에서 57%가 원자력을 첫째로 꼽고 있어 원자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태양에너지(구서독지역 58%, 구동독지역 48%)로 「원자력과 태양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DAtF에서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에너지정



책면에서의 배려가 기대되는 가운데(이번의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독일의 평균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에너지정책의 기본 입장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또한 DATF에서는 「지지정당별 조사에서 사회민주당(SPD)의 지지자 중 구서독지역에서는 54.8%, 구동독지역에서는 71.1%가 원자력발전소가 운전되고 있는 현상황을 긍정하고 있다」고 지적, 작년에 5년째를 맞이한 SPD의 탈원자력정책에 반대하는 당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SPD가 탈원자력정책을 발표한지 만 5년째 되는 날에 맞추어 발표되었다. SPD가 1986년에 채택한 탈원자력정책에는 1. 1987~1988년에 걸쳐 운전중인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및 폐지작업을 시작해 10년 이내에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한다. 2. 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중인 것 포함)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전인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3. 재처리공장건설을 중지하고 사용후연료는 직접처분한다. 4. 국내에서의 혼합산화물(MOX) 연료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SPD는 원자력을 포기한 후의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석탄, 천연가스의 수요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태양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보다 집약적인 절약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원자력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DATF는 SPD가 탈원자력정책을 채택한 후

동서독의 통일이냐 최근의 지구환경문제 같은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탈원자력노선의 강행을 고집하면 앞으로 적절한 에너지정책을 취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DATF는 「SPD의 정책변화의 징조는 SPD를 지지하는 노조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노조내에서는 최근 원자력으로부터의 철퇴시한을 고집하는데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석탄과 원자력 양쪽을 이용하는데 찬성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1986년에 SPD가 탈원자력정책을 채택하고 나서 지금까지 5년간에 구서독지역에서는 5기의 원전이 운전개시한 것 외에 여론조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반수 이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DATF에서는 「SPD는 탈원자력의 실현을 위해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독일정부의 2005년까지의 탄산가스방출량의 25% 감소목표와 관련해 석탄에의 의존도가 높은 동독과의 통일로 인해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독일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15%의 탄산가스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자력으로부터 철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40% 감소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原子力資料 91年 11月號).

「統一독일」에서의 原電에 대한 輿論動向

(1991년 9월11일)

시행기관 : 독일원자력산업회의

조사기관 : Allensbach 여론조사소

질문: 다음 의견 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全體	舊西獨	舊東獨
· 원자력발전소건설은 계속해야 한다	6	6	8
· 구식기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를 신형 화해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로 바꿔 놓아 야 한다	31 28	28 24	43 40
·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운전은 인정하지만 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에는 반대한다	61 30	60 32	65 22
· 원자력발전소는 완전히 중지시켜야하며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도 정지시 켜야 한다	28	29	26
· 모르겠다	13	13	13

질문: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비교할 경우 어느 쪽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舊西獨			舊東獨
	1984	1989	1991	1991
· 원자력발전쪽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다	37	45	50	56
· 원자력발전쪽이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다	13	14	11	8
· 어느 쪽이나 같다	27	21	16	15
· 모르겠다	23	20	23	21

질문: 앞으로 20~30년후 독일에서는 어느 전원이 주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舊西獨	舊東獨
· 원자력발전	61	57
· 태양에너지	58	48
· 수력발전	34	37
· 풍력발전	34	22
· 석탄화력발전	33	30
· 석유화력발전	17	39
· 수입전력	17	17
· 기타	1	0.5% 以下
· 모르겠다	4	6

질문: 독일에서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全體		舊西獨		舊東獨	
· 원자력발전소건설이 계속될 것이다	16		15		21	
· 구식기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가 신형 화돼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로 바뀔 것이다	33	84	31	84	44	85
·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운전은 계속되지만 신규원자력발전소는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40		43		28	
· 원자력발전이 중지되어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도 정지될 것이다	8		9		8	
· 무응답	1		1		0.5以下	
· 모르겠다	10		9		12	

질문: 다음에 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마스크 등 기술내용 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복수응답(%)

	全體	舊西獨	舊東獨
장 점			
· 원자력발전은 경제적	46	44	53
· 원자력발전은 다른 전원에 비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다	38	37	43
· 원자력발전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진다	33	33	33
· 다른 선진공업체국도 원자력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32	29	43
·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상당수가 건설되었지만 방사성물질의 방출 같은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25	24	31
· 안전규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25	25	24
단 점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에 위험이 있다	76	76	78
· 일단 사고가 나면 그 영향이 크다	54	53	59
· 원자력은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	53	53	53
· 원자력발전소 주변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된다	29	28	30
· 우라늄연료를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해외에의 에너지의존도가 커진다	18	19	11
· 무응답	4	4	3

地域別・支持政黨別로 본 原電에 대한 意見

질문: 다음 의견 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구서독지역(%)	지 역				지지정당			
	구서독북부 노르트라인· 구서독남부 바이에른州				CDU/CSU	SPD	FDP	綠色黨
	서베를린	베스트팔렌州	라인강하류					
· 원자력발전소건설은 계속해야 한다	7.1	7.2	3.5	6.2	9.4	3.4	3.1	-
· 구식기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를 신형화해 안전한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25.1	18.0	22.3	36.8	32.6	18.1	25.7	6.4
·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운전은 인정하 지만 신규건설에는 반대한다	34.0	29.3	34.7	30.7	33.0	33.3	42.2	17.9
· 원자력발전이용은 지양해야 하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운전도 정지해 야 한다	23.1	36.2	29.4	24.4	18.2	36.3	26.8	66.9
· 모르겠다	13.7	14.3	13.7	9.1	12.9	13.1	4.1	11.4

구동독지역(%)	지 역						지지정당				
	메클렌부르크 · 포메른州	동베를린	브란덴 부르크州	작센· 안하르트州	작센州	추린겐州	CDU	SPD	綠色黨 聯合'90	FDP	PDS
· 원자력발전소건설은 계속해야 한다	7.2	19.8	5.6	8.6	8.6	3.5	6.9	7.2	6.4	5.3	14.4
· 구식기술에 의한 원자력발전 소를 신형화해 안전한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50.3	48.4	39.5	44.5	37.3	29.4	37.7	40.7	41.6	36.5	59.0
·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운전은 인정하지만 신규건설에는 반 대한다	19.7	21.4	18.2	20.6	23.5	25.9	26.5	23.2	25.2	14.4	19.6
· 원자력발전이용을 지양해야 하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운 전도 정지해야 한다	22.3	23.6	23.2	24.7	26.8	32.7	23.2	30.1	20.0	39.5	16.1
· 모르겠다	10.0	7.0	18.1	14.4	11.1	13.9	11.7	10.3	10.5	11.6	3.6

주) 연속 16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CDU/CSU: 기독교민주·사회동맹

SPD: 사회민주당

FDP: 자유민주당

PDS: 민주사회당(사회주의통일당)

*이외에 원자력발전소신규건설에 관한 의견조사가 시행돼 위 4항목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표의 %수치에는 그 결과가 중복돼 있어 합계가 100을 넘고 있다.